현대 국어 번역문의 실태

김정우 · 경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번역문과 번역 보편소

필자는 한때 적잖은 책을 번역하면서 궁금하던 것이 하나 있었다. 영문 텍스트를 한국어로 옮기면 거의 매번 번역 텍스트의 분량이 대략 15~20% 정도 늘어나곤 하는 것이었다. 필자는 그때까지 주로 영한 번역을 했으므로, 한영 번역의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 의문의 골자였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영어 텍스트를 한국어로 옮길 때 텍스트의 분량이 늘어났으므로 반대의 경우, 즉 한국어 텍스트를 영어로 옮길 때는 번역의 분량이 그만큼 줄어들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기회가 되어 실제로 몇 차례 한영 번역 작업을 해 보니, 텍스트의 분량은 영한 번역 때와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분량만큼 늘어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목표언어가 한국어든 영어든 이와 같은 번역 텍스트의 분량 증가는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해당 텍스트가 (일차적으로 생성된 원전 혹은 비번역문이 아니고) 번역문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 볼 수 있다.[1)]

1) 이러한 맥락에서 최정아(2003)는 말뭉치에 기반하여 영-한, 한-영 번역 시에 일어나는 단어 수효의 증감을 논의했다. 단어 수효의 증감이 일어나는 요인으로 영어와 한국어의 구조 차이(굴절어와 교착어) 및 번역자의 번역

이와 같이 어떤 텍스트가 원문이 아닌 번역문이어서 발생하는 특징을 번역 보편소라고 부른다.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따르면, 단순화와 명시화, 규범화, 상호 합치 등이 번역 보편소의 목록에 포함된다.[2] 처음 세 가지는 비번역문과 비교한 번역문의 특징이고, 마지막 하나는 번역문들 상호 간에 보이는 특징이다.

단순화란 번역문이 비번역문에 비해 여러 측면에서 간소화된 특징을 갖는다는 것으로 핵심은 어휘적 다양성과 정보량의 감소에 있다. 어휘 항목 혹은 사전의 표제어 형태(type) 대 실제 실현된 횟수(token)의 비율이 낮고 고빈도 단어의 출현 비율이 높아서 결과적으로 다양한 어휘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자의 특징이고, 문법 기능어에 비해 실질 내용어의 출현 비율이 낮아서 결과적으로 정보의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후자의 특징이다.

명시화란 목표언어의 독자를 위하여 원문에 없거나 문맥에 내재된 내용을 명시적으로 드러내 표현하는 특징을 가리킨다. 이러한 명시화의 결과로 번역문에는 수식어나 접속어, 양화사 등 문법 장치가 늘어나고, 추가 정보를 덧붙이거나, 대명사 등의 중의성을 해소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3]

전략 차이를 들었다. 계량적 방법으로 번역문에 나타나는 의미 있는 경향을 확인한 연구이지만, 단어에 대한 기준을 영어와 한국어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었던 점이 한계였다. 즉 (한국어 품사론에서 말하는 종합적 견해를 따라) 곡용과 활용을 마친 어절 단위를 한국어에서 단어로 간주했기 때문에 한국어 텍스트에서 일어난 단어 수효의 감소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다.

2) 이들 네 가지가 대표적인 보편소이고, 이외에 수사법과 관련하여 중립화를 거론하기도 한다.

3) 번역자가 명시화를 실현하는 방법은 대개 문법 정보나 내용 정보의 추가로 나타나서, 앞서 말한 텍스트의 분량 증가를 가져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명시화가 반드시 내용 정보나 문법 장치의 '추가'로만 실현되는 것은 아니어서, 어떤 자질의 '삭제' 곧 부재(不在)로 실현되기도 한다.

규범화[4]란 원문에 나타난 텍스트 고유의 특징을 목표언어의 언어와 문화 규범에 맞게 조절하는 특징을 가리킨다.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규범화의 용례로는 개별 언어에 따라 상이한 문장 부호 용법의 변환을 들 수 있다.

상호 합치[5]란 번역문들이 서로 간에 유사성을 보인다는 것인데, 주로 어휘 항목 대 실제 실현 횟수 비율과 어휘 밀도, 문장 길이 등에서 번역문들이 평균값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여 결과적으로 비번역문보다 이들 수치의 분산값이 낮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들 네 가지 번역 보편소는 제각기 동떨어진 특징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연관 관계를 맺고 있다. 예컨대 고빈도 어휘의 사용으로 인한 어휘적 다양성의 감소는 번역문들 상호 간에 어휘적 획일성을 낳고 이는 결과적으로 상호 합치의 특징으로 이어진다. 마찬가지로 예컨대 목표언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접속어를 첨가하는 명시화는 문법 기능어의 사용 빈도를 높이는 단순화로 이어진다. 또한 명시화는 규범화와 일정 부분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고, 이들 보편소는 번역문들의 유사성을 높여 상호 합치의 경향을 드러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번역 보편소를 확인하려면, 무엇보다 번역문과 비번역문으로 이루어진 대규모의 말뭉치가 필요하다. 일정 규모 이상의 말뭉치를 조사해야만 어떤 언어적 특징의 계량적 일반화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6] 물론 원천언어도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다양성을 갖추어야 진정한 일반화에 의한 번역 보편소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7]

---

4) '표준화'라는 용어로 부르기도 한다.
5) '수렴화' 혹은 그냥 '합치'라는 용어로 부르기도 한다.
6) 언어학과 전산학, 번역학의 협업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7) 본고에서도 영어에서 번역한 한국어 번역문의 특징만을 논의 대상으로 삼았다.

2. 번역 보편소와 한국어 번역문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의 대규모 말뭉치 기반 연구와 비견되는 연구 성과가 나온 바 있다. 김혜영(2009)에서는 각각 100만 어절에 이르는 번역 텍스트와 비번역 텍스트 형태 분석 균형 말뭉치를 비교하여, 형태별 빈도에서 발견되는 영한 번역문의 특징을 어휘, 구문, 담화·화용 등의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면서, 번역 보편소와 한국어 번역문의 개별적 특징을 추출해 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적어도 영어를 번역한 한국어 번역문은 단순화와 상호 합치의 번역 보편소를 보여 준다. 즉, 품사별 빈도에서 정보성이 낮고 어휘의 다양성이 낮아서 단순화의 특징을 보여 주고, 관형사와 격조사를 제외한 모든 품사에서 텍스트 유형 간의 상대 빈도가 유사해서 상호 합치의 특징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영한 번역문에 번역 보편소인 단순화와 상호 합치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입증한 성과도 중요하지만, 영한 번역문의 개별적 특징을 계량화했다는 점이 이 연구의 더욱 중요한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밝혀낸 영한 번역문의 개별적 특징을 언어 단위별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휘와 형태 층위를 보자.

체언에서는 1인칭 대명사의 빈도가 낮고 2인칭과 3인칭 대명사의 빈도가 높은데, 3인칭 대명사에서는 '그, 이것/이거, 그것/그거' 등이 많이 쓰이며, 2인칭 대명사에서는 '당신, 그대, 여러분' 등이 많이 쓰인다. 의존 명사는 '것/거'와 '때문'이 많이 쓰인다. 용언에서는 '만들다, 가지다, 의하다, 대하다' 등의 동사가 많이 나타나고, 통사적 피동에 사용되는 '-아/어 지다' 형태가 많이 나타난다. 수식언에서는 단형 부정문에 사용되는 부사 '안, 못'이 적게 나타나고, 정도 부사 '가장, 매우, 아주, 너무'가 많이 나타난다. 접속 부사 '및, 혹은, 그런데, 한편'이 적게 나타나고, '그리고, 그러나, 하지만, 왜냐하면'이 많이 나타난다. 관계언(조사)에서

는 주격 조사 '-이/가'의 빈도가 낮게 나타나고, 관형격 조사 '-의'와 부사격 조사 '-에게서, -으로부터, -으로' 등의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서술어 '되다'의 보충어 자리에 보격 조사 '-이/가' 대신 부사격 조사 '-(으)로'가 많이 쓰인다. 보조사 중에서는 '-은/는'이 많이 쓰인다. 그리고 주격 조사 '-이/가'에 비해 주제 표시 보조사 '-은/는'이 과도하게 많이 나타난다.

다음으로 구문 층위를 보자. 종속 접속에서는 상투적 번역어가 많이 나타나는데, 예컨대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왜냐하면', 조건 관계를 나타내는 '만약, 만일', 양보 관계를 나타내는 '불구하고'가 많이 쓰인다. 보조 용언이 결합한 시간 표현('-고 있다', '-아/어 왔다', '-을 것이다' 등)이 선어말 어미에 의한 시간 표현보다 우세하다. 또 피동 표현 자체가 (비번역문에 비해) 많이 나타나고 '-에 의하여'를 행위자로 하는 피동 표현이 두드러진다. 사동 표현에서는 '-게 하다' 혹은 '-게 만들다' 구성에 의한 장형 사동문의 빈도가 높다. 단형 부정이 적으며, '-수 없다'로 표현되는 어휘적 능력 부정 형식이 많이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담화 층위를 보자. 대등 접속에서는 병렬 접속과 선택 접속의 쓰임이 적고 대조 접속('그러나, 하지만')의 쓰임이 많으며, 그 결과로 전환 접속('그런데')의 쓰임이 현저히 낮다. 그리고 지시 표현에서 3인칭 대명사가 많이 쓰이고 2인칭과 3인칭 대명사는 평칭이 적게 쓰이고 존칭이 많이 쓰인다. 높임 표현에서는 선어말 어미 '-(으)시-'에 의한 주체 존대 형식의 빈도가 낮게 나타난다.

이상에서 언급한 영한 번역문의 특징 가운데 일부는 그리 힘들이지 않고도 원천언어인 영어의 간섭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컨대 2인칭 대명사 '당신, 그대, 여러분' 등과 3인칭 대명사 '그, 이것/이거, 그것/그거' 등이 많이 쓰인다는 것은 주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영어 구문을 번역하면서 발생한 현상이며, '만들다, 가지다, 의하다, 대하다' 등의 동사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이른바 사역 동사 구문을 번역하면서 발생한

현상이고, 통사적 피동에 사용되는 '-아/어 지다' 형태와 '-에 의하여'를 행위자로 하는 피동 표현이 두드러진다는 것은 통사적 절차로 수행되는 영어의 수동태 구문을 번역하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인과 관계와 조건, 양보를 나타내는 상투적인 번역 표현('왜냐하면', '만약', '불구하고' 등)이 많이 나타나는 것도 접속사 범주가 존재하는 영어 구문의 간섭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수 없다' 형식의 빈출 역시 영어 원문의 조동사(can) 구문이 간섭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나머지 특징의 일부도 잘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번역 보편소의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한 것이 몇 가지 눈에 뜨인다. 부정문의 유형 중에서 장형 부정문이 단형 부정문보다 많이 나타나고, 사동문의 유형 중에서 통사적 절차인 장형 사동문이 어휘적 절차인 단형 사동문보다 많이 나타나며, 시제 범주에서 보조 용언이 결합한 시간 표현이 선어말 어미에 의한 시간 표현보다 많이 나타나는데, 이들은 모두 유표적 문법 절차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예컨대 장형 사동문의 경우를 보면, 이는 영어 원문의 사역 동사 구문을 직역한 데서 비롯된 결과가 아니라, 사역(causative)이라는 의미 기능을 목표언어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사역의 의미 기능을 두드러지게 표시할 수 있는 문법 장치로 표현하려는 전략(구조 대 구조의 번역 전략)을 선택한 결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이들 특징은 구조적 명시화라는 이름으로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지만 비번역문에 비해서 번역문에 의존명사 '때문'이 빈출한다든가, '그러나'로 대표되는 대조 접속 표현이 '그런데'로 대표되는 전환 접속보다 우세하게 나타나는 등의 현상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8] 이 문제는 원문과 번역문을 나란히 두고 양쪽을 대조해 보아야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장을 달리하여 이야기하기로 한다.

8) 계량적 통계 분석의 한계이다. 계량적 분석은 결과론적 기술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 한국어 번역문의 개별적 특징과 보편적 특징

이러한 맥락에서 졸고(2011a)에서는 각각 25만 어절 규모의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 병렬 말뭉치를 활용해서, 영한 번역문의 개별적 특징들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를 조사해 보았다. 지면 관계상 어휘 층위에 속하는 항목인 '때문'에 대한 조사만 소개하기로 한다.[9)]

원문과의 대조를 통해서 의존 명사 '때문'의 연원을 조사한 결과는 대체로 접속사를 번역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전후 문맥에서 유추해서 영형태(零形態, zero)를 '때문'으로 번역한 용례가 가장 많았다(45%). 즉, 다음 예문 (1)에서 보듯이 원문에는 이유나 원인을 표시하는 아무런 언어 표지도 없는데, 번역자가 전후 문맥을 보고 이유나 원인을 표시하는 어구를 넣어서 번역한 것이다.

(1.T) 린지는 체구가 작기 때문에 언니에게 물려받은 옷이 아직 잘 맞지 않는 것처럼 언제나 재킷 소매가 좀 길다.
(1.S) Lindsay is petite. Her jacket sleeves are always a bit too long for her, as if she ~

이는 명시화의 특징이 드러난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명시화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의존 명사 '때문'이 선택된 것은 이 단어가 전

9) '그러나'와 '그런데'의 상대적 출현 빈도에 대해 필자는 현재 명시화와 단순화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전후 문맥을 보다 분명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번역자의 심리적 명시화 의도가 문장의 논리적 연결 관계를 드러내는 문장 접속 부사의 과잉 사용을 낳고, 그 가운데서도 의미의 적용 영역이 넓은 상위어 '그러나'가 하위어 '그런데'보다 많이 사용된 것으로 본다. 역으로 말하면 비번역문, 곧 모국어 텍스트의 필자는 직관적으로 문맥의 세부적인 사항을 민감하게 파악하여 직접 표층 대조('그러나')와 직접 심층 대조('하지만') 및 간접 대조('그런데')를 적절하게 구분해서 사용하지만, 원문의 의미 전달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는 번역문 텍스트의 필자는 문맥에서 보다 선명한 의미 관계를 드러내는 데 주력하여 직접 표층 대조를 다른 형태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후 문맥의 논리적 연결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라는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명시화는 원천언어와 목표언어의 언어 구조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 목표언어 독자들의 가독성을 향상시킬 의도로 번역자가 채택한 번역 중재 방법이므로 선택적 명시화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10]

이제 적어도 지금까지 논의된 영한 번역문에 나타나는 개별적 특징들은 크게 보아 단순화와 명시화, 상호 합치 등 모든 번역문에 나타나는 보편적 특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번역 보편소의 범주에 귀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번역 보편소 중에서 남은 하나, 곧 규범화는 한국어 번역문과 무관한가를 살펴볼 계제가 되었다.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한국어 번역문에도 규범화의 보편소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다.

필자는 졸고(2011a)에서 규범화의 존재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영어 원문의 줄표(dash)가 한국어 번역문에서 어떻게 번역되었는가를 조사해 보았다. 영어 원문의 줄표는 한국어 번역문에서 일곱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는데, 줄표를 전후해서 문장이 분할되어 새로운 문장이 생성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40.5%), 다음으로 줄표와 관련된 원문의 어순이 도치되면서 연결 표현과 함께 번역문에 나타나는 용례(19.5%)와 원문의 어순을 지키면서 연결 표현과 함께 번역문에 나타나는 용례(18.1%)가 뒤를 이었다. 그 밖에 줄표와 관련된 어구가 번역에 반영되지 않고 누락된 용례(11.2%), 말줄임표로 변환된 용례(7.1%), 괄호로 묶여 나타나는 용례(2.3%) 및 쉼표를 거느린 독립어구로 나타나는 용례(1.3%) 등이 있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10) '때문'과 의미상으로 중복 분포를 보이면서 일정 영역에서 상보적 분포를 보이는 '탓, 덕분'의 출현을 '때문'이 저지한 것도 고빈도 출현의 이유가 된다. '때문'이 경쟁 단어에 대해 상위어인데, 상위어를 선택한 것은 물론 번역자가 선택적 명시화 전략을 사용한 결과이다. 한편 '때문'이 '탓'과 '덕분'의 영역을 잠식했다면 이는 어휘의 단순화를 낳게 된다.

위와 같은 번역 유형의 다양성이 아니라, 원문의 줄표가 동일한 형태의 한국어 문장 부호 줄표로 나타나는 용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양상은 적어도 한국어를 사용하는 전문적인 번역자나 편집자 집단에서 줄표를 아직까지 (쉼표나 마침표, 가운뎃점 등과 같이) 통상적인 한국어의 문장 부호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에 근거하여 영어 원문의 줄표를 번역한 한국어 번역문의 보편적 특징을 찾는다면, 그것은 원천언어 특유의 텍스트 특징을 목표언어의 전형적인 텍스트 특징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규범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영한 번역문에는 단순화와 명시화, 규범화, 상호 합치 등 번역 보편소가 모두 나타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역으로 이와 같은 단순화와 명시화, 규범화, 상호 합치 등의 번역 보편소가 실현된 것이 현대 국어 (영한) 번역문의 실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11]

우리는 앞서 제2장에서 김혜영(2009)의 연구사적 의의에 대해 말했는데, 보다 거시적인 두 가지 항목에 대한 조사가 빠진 점은 현대 국어 번역문의 특징을 다루는 우리의 주제와 관련하여 상당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나는 비번역문과 번역문에 나타나는 동사와 명사의 사용 비율이다.[12] 이 문제를 조금 더 천착하면 이희재(2009: 35~51)에서 말하는 '동적인 한국어'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번역문에 원천언어인 영어의 간섭이 미쳐 비번역문보다 동사의 사용 비율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다음 예문에서 전치사를 매개로 앞의 명사구를 수식하는 원문의 구조를 보존한 (2.Ta)보다 이 명사구를 동사

11) 그러므로 조금 거칠게 말한다면 제2장에서 언급한 영한 번역문의 개별적 특징들도 결국 번역 보편소의 틀을 기반으로 원천언어인 영어와 목표언어인 한국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형성된 표면형에 지나지 않는다.

12) 김혜영(2009)의 연구는 한국어 번역문의 특징을 조사할 때 먼저 언어 층위별로 나누고, 같은 언어 층위 안에서 용언, 체언, 수식언 등의 범주를 나누었기 때문에 이들 범주를 교차하는 조사는 애초에 기대하기 어렵도록 설계되었다.

구로 전환한 (2.Tb)가 “한결 아름다운 한국어 문장”(이희재 2009: 45)으로 느껴진다.[13]

(2.S) The film was a beautiful evocation of traditional Korea.
(2.Ta) 영화는 한국 전통의 아름다운 재현이었다.
(2.Tb) 영화는 한국의 전통을 아름답게 재현했다.

다른 하나는 비번역문과 번역문에 나타나는 고유어와 한자어의 사용 비율이다. 이 문제는 한국어의 어휘부가 고유어와 한자어로 구성된 독특한 혼종어 체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어 문어의 글쓰기 전통이 사실상 한문 전적의 언해에서 비롯되었다(전성기 2008)는 점에서 특히 우리의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14]

지금까지 주로 현대 국어 영한 번역문에 대해 계량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서 그 특징을 개괄해 보았다. 앞서도 ‘간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계량화와 (원문과 번역문의) 단순 대조만으로는 정확한 실상을 알 수 없는 현대 국어 영한 번역문의 뚜렷한 경향을 기존 연구와 필자의 개인적 경험에 비추어 한 가지만 지적해 보고자 한다.

4. 현대 한국어 번역문과 직역주의

작금에 나오는 번역서는 가독성이라는 측면에서 1960~80년대의 번역 수준에서 한 단계 올라선 느낌이다. 지금 시점에서 앞선 시기에 나왔던 번역문의 실태 연구를 접하면, 먼 옛날의 이야기처럼 보일지도 모

13)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비과학적이라면 ‘안정감이 든다’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14) 서구 외래어의 사용 비율까지 포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른다. 예컨대 다음 예문의 밑줄 친 어구에 보이는 바와 같이 어색하게 남용된 2인칭 대명사는 이제 더 이상 구경할 수 없을 것이다.[15]

(3S) "Are you very hungry?" said the goat. "And is it your dinner time? And would you like to eat me?"
(3T) "당신은 그렇게 시장하십니까?"하고 산양은 말했습니다. "지금이 당신의 점심 때입니까? 당신은 나를 먹고 싶지요?" (1952년 판 이솝우화)

사실상 현재 웬만한 수준에 이른 번역서는 상당히 세련되어 독자들이 거의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읽을 수 있다. 그런 이면에 우리의 상식과 조금 다른 경향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직역주의(이희재 2009: 15~34)이다. 세련된 번역이 의역일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의 상식이기 때문이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4S) Germany's departure from the League of Nations intensified the mutual interest in an improved relationship.
(4Ta) 독일이 국제연맹에서 탈퇴하면서 두 나라 모두 관계 증진에 전보다 관심을 쏟았다.
(4Tb) 독일의 국제연맹 탈퇴는 관계 증진을 위한 상호 관심을 증강시켰다. (이희재 2009: 38)

명사를 중시하는 표현을 즐기는 영어와 달리 한국어는 동사를 중시하는 표현을 선호한다는 명제를 상기한다면, 원문 (4S)에 대한 자연스러운 한국어 번역은 (4Ta)가 되겠지만, 구문 형식을 거의 그대로 모사한 (4Tb)에 대해서도 독자들은 그다지 큰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

15) 그래도 대명사의 사용 자체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이희재(2009: 67)에서는 현대의 번역자들에게 대명사의 사용이 늘어났다고 말하면서, "대명사를 안 쓰면 불안하다고 느끼는 모양"이라고 지적한다.

사실이다. 독자들의 직역주의 선호 경향은 장민호(2004: 43)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앞선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영한 번역 소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도착어 문화에 맞게 번역해야 좋다는 통념과 달리 출발어 언어와 문화를 그대로 반영한 직역투의 호칭과 화법을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역설적인 보고를 소개하고 있다. 장민호(2004: 43)에서는 특히 이에 대해 '번역이 도착어 문화에 맞게 해야 한다'는 명제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도착어 문화 또는 도착어 독자가 외래문화의 영향을 받았을 때는 도착어 문화(독자)가 변화한 것이고 따라서 번역에 대한 독자의 기대 수준도 변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는 영어식 사고 구조가 우리나라 번역자와 독자에게 적잖게 침투한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대략 40여 년의 시차를 두고 나온 다음의 두 번역문을 비교해 보자.

(5S) Just then he saw a Crane passing by, "Dear friend," said he to the Crane, "there is a bone sticking in my throat. You have a good long neck; can't you reach down and pull it out? I will pay you well for it."
(5T) 마침 그때 늑대는 학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보게 동무" 하고 늑대가 말했습니다. "내 목에 뼈가 걸려 있는데, 자네 목은 길고 그것을 내 목구멍에 넣어서 뼈를 좀 뽑아 버려줄 수 없겠나? 그러면 내 사례를 톡톡히 할 테니." (1952년 판 이솝우화)

(6S) "You must flay a wolf alive, and put the hide on yourself while it is still warm."
(6T) "이리를 산 채로 벗겨서 그 가죽이 아직도 따뜻할 때 그것을 두르십시오." (1991년 판 이솝우화)

1952년도 판인 (5T)에서는 잉여적 대명사 '그것을'이 불만스럽고 문장 구성이 조금 어색하긴 해도, '동무'라든가 '자네' 등의 호칭어 번역에

서는 적절하게 자국화된 표현이 사용되었다. 이에 비해 1991년 판인 (6T)에서는 밑줄 친 대명사가 둘씩이나 사용되어 오히려 번역의 기술이 퇴보한 느낌을 준다(사실 이 번역은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읽힌다). 그런데도 이런 군더더기 표현이 사용된 것은, 원문의 시간 표현 종속절(while 이하)에 나온 밑줄 그은 대명사의 존재로밖에는 달리 설명할 도리가 없다. 한편에서 이러한 직역주의를 '논리적인 번역'이라는 명제로 옹호하는 견해도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때, 그 세력이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5. 맺음말

지금까지 현대 국어 영한 번역문의 모습을 번역 보편소와 관련하여 검토해 보았다. 조사 결과, 우리는 현대 국어 영한 번역문에 나타나는 각종 개별적 특징을 크게 단순화와 명시화, 규범화, 상호 합치 등으로 대표되는 번역 보편소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대규모 말뭉치를 기반으로 하는 외국어권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현대 국어 영한 번역문에도 번역 보편소가 거의 그대로 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이른바 직역주의가 새롭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현상을 현대 국어 번역문의 한 가지 특징적 경향으로 지적했다.

참고 문헌

김정우(2011a), 한국어 번역문의 중간언어적 특성,《번역학연구》12권 1호, 75~122.

김정우(2011b), 영어 번역 한국어의 문체와 어휘,《한국어학》53집, 1~27.

김혜영(2009),《국어 번역 글쓰기의 연구》,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이희재(2009),《번역의 탄생》, 서울: 교양인.

장민호(2004), 영화번역 전략과 언어의 경제,《통번역교육연구》2권 2호, 21~48.

최정아(2003), 병렬 말뭉치를 통한 한국어-영어의 번역 단어수 연구,《번역학연구》4권 2호, 89~115.